

새문안교회의 농어촌 선교정책

이 상 환(목사, 새문안교회 국내선교부)

1. 들어가는 말

지금 농어촌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힘들고 어렵다. 먼저는 농어촌인구의 이동과 노령화이다. 이로 인해 교인의 수가 줄고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올해 미자립교회 지원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의 몇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말로만 들던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농어촌교회에 대한 대도시교회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농어촌교회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농어촌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새문안교회 농어촌 선교현황을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에 농어촌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농어촌교회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새문안교회에서 농어촌 선교가 차지하는 위치

새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로써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의 빛을 많이 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에 빛진 자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투자와 헌신을 하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여섯 개의 위원회(기획위원회, 예배위원회, 음영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여섯 개의 위원회가 각기 다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위원회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는 다섯 개의 부서(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북한선교부, 전도부, 사회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부서 중에서 농어촌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내선교부이다. 그러나 국내선교부는 농어촌 선교뿐만 아니라 직장선교, 군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 마스크 선교 등 국내의 전반적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문안교회의 농어촌 선교는 새문안교회의 선교위원회에 소속된 국내선교부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 중에서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새문안교회에서 농어촌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문안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들 중에 일부분 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새문안교회는 적지 않은 예산을 농어촌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3. 새문안교회의 농어촌 선교현황

1) 과거의 농어촌 선교

과거의 새문안교회 농어촌 선교는 개척교회 설립과 미자립교회 지원이 농어촌 선교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래서 그 동안 새문안교회는 새진도교회, 새온교회, 새문교회, 새정교회, 새

곡교회, 수원새문안교회 등 많은 개척교회를 설립해 왔고, 매년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늘려 왔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간에 친교를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목회자 수련회를 갖기도 했다.

2) 현재의 농어촌 선교

현재의 새문안교회 농어촌 선교는 미자립교회 지원이 농어촌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재 농어촌교회는 농어촌 인구의 이동으로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헌금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하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의 자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농어촌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이번 농어촌교회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지금의 어떤 농어촌교회는 영원히 미자립교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새문안교회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영구히 미자립교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골라 그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 성적이 우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4. 21세기 농어촌 선교의 방향성

21세기 농어촌 선교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농어촌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참된 목회를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될 때 마음놓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농어촌 선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총회 농어촌부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농어촌 선교가 진행될 때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의 비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 그들이 그들의 목회를 의욕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

넷째,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농어촌은 판로를 확보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농어촌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교회와 직거래를 통해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다섯째, 농어촌 주일에는 저녁 찬양예배시 도시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강사를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로 초청하고, 예배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헌금을 농어촌교회에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로서 농어촌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새문안교회가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것은 개교회가 지닌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문안교회는 농어촌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이며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엄청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도 후원하고자 한다.

끝으로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 가정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